

가까운 곳에 있는 감사 제목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사다. 동부 서부를 몇 번씩 이사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다녀보니 미국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 것 같더냐?”고 질문한다. 참으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여기 저기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장소를 골라서 거기가 제일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었다. “서부가 제가 살았던 동부 보다는 많이 편리해서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살았던 필라델피아와 뉴저지보다 서부에 있는 LA와 오레곤이 살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했기 때문이다. 도로 사용료를 낼 필요도 없고, 날씨 온도 차도 그런대로 크지 않으며, 주위에 마켓부터 홈 디포(Home Depot) 에 이르기까지 모두 찾기 쉬운 가까운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다. 날씨와 공기 그리고 산과 바다를 논하기 전에 서부가 동부 보다는 더 살기 편리해서 좋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얼마나 느끼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로 불만과 불평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다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다니며 은혜를 받는다면 복 많이 받은 인생이다. 더 나가서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자연을 대하며 아주 가까이에서 그 혜택을 누리고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 바로 아래가 여기 아닌가?

하지만 내 스스로를 보면 늘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기보다 나에게 불편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불편할 것을 미리 불평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을 본다.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다는 뜻이다. 또한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하게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이다.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일들 보다는 기대가 되는 일들이 더 많고, 힘든 일들 보다는 하나님께서 복된 것들을 내 주의에 더 많이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감사하게 된다.

지금 내가 당하는 감사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인생의 전부 인 것 같지만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 인생 전부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이고 더 잘되고 행복하게 될 일들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알면 믿음의 감사를 드리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곳이고 또한 행복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 만으로도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감사의 제목이 많다. 가까이는 혼란 가운데 있던 내 마음을 더욱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